돈을 부르는 이름

(요17:11~19)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돈을 부르는 이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돈을 부르는 이름!
이름을 입에 담기만 하면,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그런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냥 쉽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인데, 알고 보면 상당히 신기한 구절이 있습니다.

두 번 반복 되는데, 11절과 12절에 주님께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그 앞 11절에는 이제 세상을 떠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 12절에는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주님께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전하고 지켰고, 이제 주님이 세상을 떠나서 없게 되면, 아버지가 주님에게 주셨던 그 이름으로 또 제자들을 보전해 달라고 기도 하십니다.

이름으로 보전하고, 이름으로 지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름을 주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뜻을 알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이야기 하나를 한번 끌어들여 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이 임기를 마치 게 될 즈음이면, 5년마다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들의 검찰 출두에요, 비리로 인해서 검찰에 출두하게 됩니다.
연례행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때 그 형들, 전 경환, 전 기환.
노량진 수산시장 운영권 하고 새마을 운동 본부장을 하면서 70억을 횡령을 합니다.
또 노태우 대통령 때, 이건 뭐 사돈의 팔촌이라 그러더니, 사촌 처남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아내 되시는 분의 사촌이 되는 박 철언 씨가 슬롯머신 운영자한테 6억을 받습니다.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냐 하면,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두운 겁니까?
김영삼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가 30억을 받아서 검찰이 출두하고 난리를 치게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노 건평 씨, 형이 30억을 또 수수합니다.
이 명박 대통령 때, 이 상득 의원이 지금 감옥에 가 있고, 그 아내 되시는 김 윤옥여사의 사

촌 형제들, 김 옥희 씨가 30억을 수수하고, 그 사촌 김 재홍 씨가 또 4억을 수수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 할까요?
전 두환 대통령부터 이 명박 대통령 때까지 저도 이 땅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들의 이름을 수없이 제 입에서 언급했습니다, 임기 동안에 수백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백 원짜리 동전 하나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노태우 대통령의 처사촌, 직접 친 사촌도 아니고 처사촌 박 철언 씨가 슬롯머신을 운영하는 사람 앞에서, 노태우라는 이름을 입에 담을 때 6억이 앞에 딱 주어집니다.
아 이상하지요? 이 명박 대통령의 아내 되시는 영부인이었던, 김 윤옥여사의 사촌들, 이 명박 대통령의 사촌도 아니고, 처사촌인 김 옥희 씨나 김 재홍 씨가 이 명박이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 30억이 그 앞에 떨어지고, 4억이 그 앞에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제자들을 지켰고, 그 이름으로 앞으로도 지켜 달라고 기도하실 때, 이름을 주셨다는 내용의 이해를 위한 어떤 근거가 될 만한 비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언뜻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입에서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 유대사회의 지도자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전유물처럼 생각하고 언급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선민들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왜 주님께서, 나에게 아버지께서 이름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름이고, 모두가 다 언급하고 있는 이름인데…

이게 바로 큰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말의 속뜻이 무엇일까요?
대통령들의 친인척의 비리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아무리 이 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이야기해도, 아~무도 저한테 정말 백 원짜리 동전 하나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촌도 아니고, 그 영부인의 사촌인 김 옥희 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 담을 때 그 앞에 30억이 주어지고, 사촌 김 재홍 씨가 이 명박이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 4억이 앞에 주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의 이름을 이야기 할 때는, 나나 우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의 이름을 이야기 할 때와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실제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아무리 대통령의 이름을 입에서 언급하고 얘기를 해도, 실제 청와대에 있는 그 대통령,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 대한민국의 삼군통수권자인, 실제 그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그 이름을 이야기해도, 안개에요 안개, 공중에 흩어지는 안개와 같은 겁니다.

그런데 김 윤옥여사, 영부인의 사촌들이라도, 그들이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얘기하고 대통령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실제 청와대의 안주인인 그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다리를 거쳐서라도), 그래서 그 입에서 이름이 언급 될 때는, 돈이 불러들여지는 겁니다.
노 건평 씨가 얘기할 때 30억이 앞에 떨어지는 겁니다.
전 기환, 전 경환 씨가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얘기할 때 70억이 그 앞에 떨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김 영삼씨 아들 김 현철 씨.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법제 조직상, 아무런 신분도 아무런 지위도 주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30억이 그 앞에 빨려 들어옵니다.
왜 그래요?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김영삼 대통령이라는 이름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름이 주어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 대통령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은 지붕 밑에서, 같은 청와대 안에서, 같은 밥상에서, 같은 밥솥에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다른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름을 얘기할 때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 봐도, 실제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호흡을 지금 당장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 죽은 사람 그 사람의 목숨을 데려가시는, 그렇게 주관하고 계시는 그 실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언급해도, 그 실제 하나님, 지금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이름을 언급할 때는,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천지의 창조주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던 목수의 아들 그 예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 중에서, 예수님만이 홀로 유일하게 하나님과 그렇게 직접 연결이 되신 분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 이름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제자들을 보전했고, 또 앞으로도 그 이름으로 보전해 달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제 입장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처사촌이었던 박 철언 씨에게 6억을 갖다 준, 슬롯머신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 우리가 한번 서봅니다.
어떻게 대통령의 권세의 그늘 아래 들어갈 수 있을까?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권세 안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의,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의 그 권세와 권력 안에, 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까?
박 철언 씨에게는 6억을 갖다 주고, 김 옥희 씨는 30억을 받습니다.
누가 주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0억을 김 옥희 씨한테 갖다 줍니다.
영부인의 사촌 언니인지 동생에게 30억을 갖다 줌으로써, 현역 대통령의 권세의 그늘 아래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그런 관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30억을 내야 됩니까? 70억을 갖다 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이름을 주심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 계시므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텐데,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받아 들여서, 주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권세와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름을 주셨다는 거.
이 세상에서, 주님이 인간들과 같이 사실 때, 제자들과 같이 살고 유대인과 같이 사실 때, 실제 하나님이 나타난 건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확인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이 직접 확인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에게 당신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직접 그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대통령이 직접 연결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딸로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서 언급되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 붙잡는 방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라이겁니다.

그래서 슬롯머신 운영하는 사람이, 박 철언 씨에게 6억을 주면서, 노태우 대통령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처럼, 실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아버지 자녀로서의 입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그 계보 안에서 그 새로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이런 대통령의 친인척의 비리가, 임기 말이 되거나 임기가 끝난 뒤에 검찰에서 문제 삼게 됩니다.
대통령이 왕성하게 국가원수로서의 권력과 권세를 행사하고 있을 때에는 이게 잠잠하고 있다가 권력 말기에 가서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나게 돼요.
지금 시민 연대가 이명박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자마자.
4대강 문제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엮어 가지고, 시민운동 하는 사람들이 고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악에 빠지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름을 주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붙으면,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에게 붙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악에 빠진다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서 이 세상으로 튕겨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검찰이 붙잡아 가듯이 이 세상에서 돈이 붙잡아 가고, 이 세상 가치들이 붙잡아 가는 거예요.
세상가치들에 매여서 또 그것들을 이루겠다고 헐떡거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정한 오복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매여서, 그것을 구하겠다고 헐떡거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뭘 그런

걸 구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에요.
왜 그런 걸 구하려고 그래요? 왜, 왜. 그게 뭐가 필요한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김 현철 씨가 지위가 있었습니까, 신분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조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비유에요, 비유.
비유로 우리가 어떤 평가 말고, 그 내용 자체를 가져 오는 겁니다.
뱀의 지혜를 가지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비유적으로 말 할 때는,
이게 비유라는 거예요.
김 현철 씨가 갖고 있었던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름 하나 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연합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끔 해달라는 기도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 세상 살아갈 때 뭐가 필요하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 하나 있으면 된다 이거에요.
내가 그 아버지와 연결이 되어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연결 됩니까?
날마다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면서 연결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그 집안의 일에 빠져 들어가는 게 바로 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와 연합하면서, 그 집안일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내게 아버지의 이름이, 주님께 주어졌던 그 이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죽은, 관심이 죽어버리고 마음이 죽어버린, 그 눈앞에 펼쳐진 그 문제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슬롯머신을 운영하는 사람이, 박 철언 씨에게 6억을 주면서, 노태우 대통령의 권세 아래 자기의 사업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닥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이 지금 기억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같이 연합해서 죽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지금 눈앞에 닥쳐있는 그 문제가 모두 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

래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아~ 요번 달에 사업이 안돼서 적자입니까?
적자라서 걱정이 많지요?
적자인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죽은 적자인 그 상황자체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의 아들들에게 돈을 갖다 주는 이유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돈 갖다 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아들과 연합해서, 내가 죽은 거라고 인정만 하라는 얘기에요 모든 문제 앞에서.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대통령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 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전되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음으로써, 내가 죽은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 들어가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 이겁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임기가 없습니다.
천지의 주권자로서, 조물주로서, 창조주로서의 우리 아버지는 임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는 그 아들과 연합해서, 때마다 시간마다 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고,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당신이 느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 이상하지요?
세상에서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이, 주님 마음에 아버지 때문에 천국 때문에 생겼던 그 기쁨이

우리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이제 곧 일어날 이 십자가사건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죽은 것으로 고백함을 통하여, 나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권세 아래 들어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